

# 스리랑카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4. 2

I. 일반개황 .....	1
II. 경제동향 .....	2
III. 정치·사회동향 .....	7
IV. 국제신인도 .....	9
V. 종합 의견 .....	11

## I. 일반개황

면적	66천 km <sup>2</sup>	G D P	651억 달러 (2013년)
인구	21.7백만 명 (2013년)	1 인 당 G D P	3,127달러 (2013년)
정치체제	대통령중심제	통화단위	Sri Lanka Rupee (SLR)
대외정책	독자적 실리노선	환율(달러당)	129.1 (2013년)

- 스리랑카는 인도의 남동쪽,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로 싱할리족 (74%)과 타밀족(7%) 등으로 구성됨. 타밀족이 차별대우에 항의하며 1965년 분리독립 운동을 시작한 이후 1983년에 내전이 시작되어 2009년에 종결됨.
-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‘실론’이라는 국호를 사용했으나 1972년 스리랑카로 변경함.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 2005년 이후 라자팍세 대통령이 장기 집권하고 있으며 내전 종식 후 정국은 안정되고 있음.
-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천연고무, 보석이 풍부하나 내전으로 열악한 인프라,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.
-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: SAARC)의 회원국으로 서남아시아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등 주변국들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.

## II. 경제동향

### 1. 국내경제

<표 1> 주요 국내경제 지표

단위: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 <sup>e</sup>	2014 <sup>f</sup>
경제성장률	8.0	8.2	6.4	6.3	6.8
재정수지 / GDP	-8.0	-6.9	-6.5	-5.8	-5.2
소비자물가상승률	6.2	6.7	7.5	7.4	6.9

자료: IMF.

#### □ 민간소비와 정부 투자 확대로 6.8%의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

- 스리랑카는 내전 종식 후 인프라 투자 증가, 관광업 호조로 2010년 이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함. 2012년에는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, 루피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으로 경제성장률이 6.4%로 둔화됨.
- 2013년에는 2012년 가뭄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 감소 및 민간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관광업의 성장으로 6.3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4년에는 1인당 소득과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힘입은 민간소비 회복과 정부투자 확대로 전년보다 상승한 6.8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# □ 세수증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감소 추세 지속

- 스리랑카는 낮은 소득 수준, 광범위한 탈세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. 하지만 정부의 세원 발굴 노력과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.
- 2013년에는 도·소매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도입과 금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로 세수가 증가하면서 동 비율은 5.8%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
- 지속적인 경제성장, 전자정부, 인터넷을 활용한 효율적 세금 수납 환경 구축 등으로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보다 감소한 5.2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

□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전망

- 스리랑카는 수입 의존도가 높아 환율 변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침. 2012년의 경우 루피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7.5%를 기록함.
- 2013년에는 전기세 인상, 인프라 사업 등을 위한 정부지출 증대, 임금상승, 부가가치세 적용 분야 확대, 연료가격 상승, 식료품 및 연료 보조금 삭감 등으로 전년과 비슷한 7.4%의 소비자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4년에는 스리랑카중앙은행(CBSL)의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능력 확대와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낮아진 6.9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장기간 지속된 내전으로 열악한 인프라

- 오랜 내전에 따른 투자 부족으로 인프라 수준이 열악하여 해외투자 유치에 큰 장애물로 작용함.
- 낮은 도로 포장률, 철도시설 부족 등으로 물류비용이 높으며, 항만·공항 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아 원자재 수급과 제품 수출이 원활하지 않음.
  - 2012년 세계은행의 물류운용지수(Logistic Performance Index)에서 스리랑카는 155개국 중 137위, 인프라 수준은 138위로 하위권을 기록함.
- 또한, 상수도 보급률(2012년 기준 39%)이 낮아 공업용수가 부족하며 낙후된 전력시설과 잦은 정전 등으로 기업들은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□ 협소한 내수시장 및 복잡한 해고절차 등에 따른 낮은 노동생산성

- 스리랑카는 인구가 약 2천 200만 명으로 인근국들에 비해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내수시장 자체만을 겨냥한 투자 유치가 어려움.
- 복잡한 해고절차, 고급 기술인력 부재, 생산설비 노후화, 많은 공휴일로 노동생산성이 중국, 베트남 등 섬유산업 경쟁국에 비해 낮고 임금은 서남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아 기업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관광지로서의 잠재력 풍부

- 스리랑카는 청정해안을 보유한 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연중 휴양지로 이용될 수 있으며, 내륙지방에는 다양한 자연 생태공원과 고대 유적지가 보존되어 있어 종합관광지로서의 개발 잠재력이 높음.
- 2009년 내전 종식 이후 관광객은 증가 추세\*이며 스리랑카 관광개발청 (Tourism Development Authority: TDA)은 2016년까지 연간 250만 명의 관광객 유치 계획을 발표함.
  - \* 2010년 65만 명→ 2011년 86만 명→ 2012년 101만 명→ 2013년 127만 명
- 스리랑카 정부는 급증하는 관광객 수에 비해 열악한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관광상품 개발, 신규 호텔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.

□ 서남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성장 가능

- 수도인 콜롬보는 인도양을 가로지르는 동서 해상 운송라인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서남아시아의 물류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.
- 이러한 점을 감안, 스리랑카 항만청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대규모 항만 인프라 확충 공사를 실시하고 있음.

다. 정책성과

□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정책 지속

- 스리랑카는 시장개방과 무역 증진을 위해 인도,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였으며, 싱가포르, 베트남, 중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.
- 또한,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(SAARC)의 회원국으로 2006년 1월 서남 아시아자유무역협정(SAFTA)에 서명하면서 회원국간의 경제협력 강화와 교역규모 확대를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였음.

□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

- 스리랑카는 외국인의 토지취득 허용, 100%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, 이익 배당의 자유 보장, 자유로운 주식 양도,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.
- 2013년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경영여건 평가(Doing Business)에서 조사대상 189개국 중 사업개시(54위), 투자자보호(52위), 수출입통관(51위) 부문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기록함.
- 대 스리랑카 외국인직접투자는 2011년 11억 달러, 2012년 12억 달러를 기록했으며, 2013년에는 11월까지 1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표 2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단위: 백만 달러, %

구 분	2010	2011	2012	2013 <sup>e</sup>	2014 <sup>t</sup>
경 상 수 지	-1,128	-4,675	-3,978	-2,409	-2,512
경 상 수 지 / G D P	-2.3	-7.9	-6.7	-3.6	-3.4
상 품 수 지	-3,480	-7,683	-7,411	-6,597	-7,055
수 출	8,626	10,559	9,778	10,395	11,308
수 입	12,106	18,242	17,189	16,992	18,362
외 환 보 유 액	6,710	6,248	6,378	5,765	5,750
총 외 채 잔 액	24,800	29,400	33,700	35,500	37,600
총 외 채 잔 액 / G D P	50.0	49.7	56.7	54.4	53.4
D . S . R .	11.1	11.1	17.2	17.3	17.6

자료: IMF, EIU, OECD.

□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 확대 전망

- 스리랑카는 내전에 따른 산업기반 약화로 고무 등 1차 상품과 부가가치가 낮은 차, 섬유류를 수출하고, 가격의 변동성이 큰 원자재, 석유 등을 수입하고 있어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함.
- 2012년 국내수요 감소, 수입관세 부과로 수입이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보다 축소된 7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, 201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과 정부의 금 수입관세 인상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은 66억 달러로 축소됨.
- 2014년에는 소득 수준 향상과 정부의 인프라 투자로 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상품수지 적자는 71억 달러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□ 관광업 호조와 해외송금액 증가로 GDP 대비 경상적자 비율 감소 전망

- 상품수지 적자 축소, 관광업 호조,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2012년과 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각각 6.7%, 3.6%를 시현함.
- 2014년에는 상품수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관광시설 개선, 해외송금액 증가로 서비스수지와 경상이전수지 흑자 규모가 증가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전년보다 낮은 3.4%를 기록하며 감소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.

□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도 외환보유액은 57.5억 달러로 소폭 감소 전망

- 2012년 외환보유액 규모는 IMF의 구제금융\*과 국채 발행으로 64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에는 스리랑카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에 따라 57.7억 달러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
\* 스리랑카는 2009년 IMF 차관 도입에 합의하여 2012년까지 26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음.

- 2014년 스리랑카의 외환보유액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대비한 국채 발행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57.5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
### Ⅲ. 정치 · 사회 동향

#### 1. 정치 동향

##### □ 현 정권의 안정적 정국 운영

- 2010년 1월 실시된 대선에서 통일인민자유연합(UPFA)의 제1당인 스리랑카자유당(SLFP) 출신 라자팍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하고 있음.
- 또한, 2010년 4월에 실시된 총선에서 여당인 UPFA가 과반이상 의석(총 225석 중 144석)을 차지하여 다음 총선인 2016년까지 안정적인 정국 운영의 토대를 마련함.

#### 2. 사회 동향

##### □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 갈등에 따른 테러 발생 가능성 내포

- 타밀 반군(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: LTTE)과의 휴전협정 폐기(2008. 1월) 이후 정부의 타밀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이 성공하여 26년 동안 지속된 내전이 2009년 5월 종식되고 2011년 8월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됨.
- 그러나 내전 당시 타밀족 민간인 학살 의혹(7만 명 이상 사망 추정)에 대한 정부의 언론탄압, 인종차별 등 강경대응으로 싱할리족과 타밀족 간 갈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.
  - 타밀 반군 약화로 내전 재발 가능성은 낮으나 타밀족의 테러 공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강화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음.

#### 3. 국제관계

##### □ 타밀족에 대한 인권문제로 서방국가와 긴장관계 유지

- 미국과 EU는 타밀족에 대한 인권침해 및 학살문제 해결과 원만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의 미온적 반응으로 스리랑카와 서방국가들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.



- 미국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제연합인권이사회(UNHRC)에 스리랑카 군의 전쟁범죄와 관련한 조사 착수, 소수민족과의 화해를 위한 적극적 조치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인권 결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킴.

□ 인권문제로 인도와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나 중국의 지원규모는 증대

- 스리랑카는 인도와 역사적, 지리적, 문화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인도 정부가 스리랑카의 전후 복구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 관계가 강화되었음.
- 그러나, 인도가 스리랑카에 대한 UNHRC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면서 스리랑카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, 2013년 11월에는 스리랑카에서 열린 영연방정상회의(CHOGM)에 인도 총리가 불참함.
- 한편, 중국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조 및 군사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, 2013년에는 중국-스리랑카 FTA 체결을 추진하는 등 향후 양국의 관계가 더욱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.

## IV. 국제신인도

### 1. 국제시장평가

#### □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

<표 3>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

평가기관	최근 평가 등급	종전 평가 등급
OECD	6등급 (2013. 6)	6등급 (2012. 3)
S&P	B+ (2010. 9)	B (2008. 12)
Moody's	B1 (2013. 7)	B1 (2010. 9)
Fitch	BB- (2013. 4)	BB- (2012. 5)

- 2013년 6월 OECD 국가위험도 평가회의에서는 재정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, 견고한 성장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권력집중 등을 이유로 종전의 6등급을 유지함.
- S&P는 2010년 9월 외환보유액 증가, 내전 종식에 따른 높은 경제성장 시현 전망,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의지를 반영하여 장기외화표시채권의 등급을 기존의 B에서 B+로 등급을 상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- Moody's는 2010년 9월 스리랑카의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을 반영하여 최초로 B1으로 부여한 이후 등급의 변동은 없음.
- Fitch도 2011년 7월 경제회복, 재정수지 적자 축소 노력 등을 반영하여 스리랑카 장기외화표시채권의 등급을 B+에서 BB-로 1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음.

### 2. 외채상환태도

#### □ 외채의존도와 D.S.R.이 높은 수준이나 외채상환태도는 무난

-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2010년 말 50.0%에서 2013년 말에는 54.4%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규모에 비해 외채규모가 과중한 것으로 분석됨.
- 다만, 2012년 총외채 중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49%로 높은 편임.

- 외채원리금상환비율(Debt Service Ratio: D.S.R)은 외채증가와 수출 감소로 2012년 17.2%에 이르렀으며 2013년에도 17.3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.
- 하지만 2013년 9월 말 기준 OECD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18.2억 달러 (단기 2.1억 달러, 중장기 16.1억 달러) 중 연체액은 20만 달러에 불과하여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무난한 수준임.

□ 주요 ECA의 지원 태도

- 미국 EXIM :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
- 영국 ECGD : 중단기 인수가능
- 독일 Hermes : 단기 인수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

3. 우리나라와의 관계

<표 4> 한·스리랑카 교역규모

단위: 백만 달러

구 분	2011	2012	2013	주요 품목
수 출	344	320	299	자동차, 편직물, 철강판, 합성고무
수 입	82	72	84	의류, 식물성물질, 기타섬유제품
교역규모	426	392	383	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- 국교 수립: 1977년 11월 14일 (북한과는 1970. 6. 25)
- 주요 협정: 항공협정(1978), 문화협력협정(1978), 투자보장협정(1980), 무역협정(1984), 이중과세방지협약(1986), 과학기술협력협정(1994)

□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

- 스리랑카와의 교역규모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4.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 교역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3년 3.8억 달러를 시현함.
  - 특히, 2013년에는 한국의 대 스리랑카 주요 수출 품목 중 자동차, 철강판 수출액이 큰 폭으로 감소.
- 우리나라의 대 스리랑카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9월말 기준 156건, 1억 7,542만 달러를 기록(투자누계 기준)함.
  - 제조업에 대한 투자(투자금액 1억 6,266만 달러)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건설업, 광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.

## V. 종합 의견

- 2013년에는 민간소비 둔화 등으로 6.3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지만, 민간 소비 회복과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로 2014년에는 6.8%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낮은 소득 수준과 탈세로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3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.8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 하지만 소득 증가와 정부의 세수 확보 노력으로 2014년 동 비율은 전년 대비 감소한 5.2%로 전망됨.
- 라자팍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 총선에서도 여당이 승리하면서 안정적 정치적 기반이 마련됨. 타밀족과 관련된 인권문제, 인종차별, 언론탄압 등 사회갈등이 존재하나, 내전 재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.
- 스리랑카는 외채의존도가 높아 외채구조의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 비중이 높아 단기적으로 외채상환 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.

조사역 김지용 (☎02-3779-5716)

E-mail: jyk@koreaexim.go.kr